

## 1980년 5월 독일 베를린서 “전두환 규탄” 36년 동안 유럽에서 ‘오월 민중제’ 열어

**5·18** 이들이 있어  
광주는 외롭지 않다

### <1> 파독 간호사 최영숙씨

오월 광주는 외롭지 않다. 5·18민중항쟁의 한복판에서 광주의 진실을 타진했던 외신기자들, 시민군의 입이 돼 진실을 전달한 통역사, 광주의 소식을 듣고 떠나면 독일·일본에서 함께 분노하며 투쟁에 동참했던 교포들, 5·18의 철학적 접근을 시도한 철학자 등등. 이들이 있기에 오월 광주는 외롭지 않다. 5·18광주민중항쟁 36주년을 맞아 이들에게 5·18의 의미와 앞으로 나아가길 듣는다.

“독일까지 와서 왜 전라도 사람을 도와 주냐. 돈이나 벌어서 고향집에 보낼 일이 지 그만두지 않겠어 당신.”

경북 성주 출신 파독 간호사 최영숙(여·74)씨는 1980년 집에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을 졸여야 했다. 누구인지 신원을 밝히지 않는 인물들이 수시로 협박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이다. 그들이 최씨를 협박한 이유는 단 하나. ‘왜 전라도를, 왜 광주를 돕느냐’는 것이었다.

지난 1966년 경북대 간호대를 졸업하고 독일로 건너간 최씨는 1980년 5월 어느 날 교민들과 모여 한 장의 초청장(사진)을 작성했다. 5월 30일 금요일 오후 4시 베를린 쿨담(우리의 종로)에 교민들이 모여 광주 시민들을 지지하고 군사독재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열자는 내용이였다. 당시 독일 교포사회는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전두환이 앞세운 신군부가 광주에서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했다는 내용을 접한 상태였다.

광주를 위해 연대하는 시위를 열자는 그 초청장을 계기로 최씨는 올해까지 36년 동안 한결같이 유럽에서 광주와 연대하는 몸

어버이날 ‘애타는 사연’  
엄마 찾는 딸·딸 찾는 엄마 ▶6면

혁신도시를 혁신하다  
기업·지자체·연구소 설문조사 ▶1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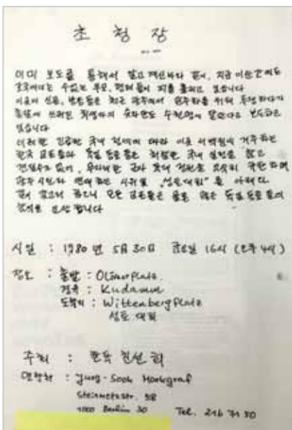


파독 간호사 출신 최영숙(맨왼쪽)씨를 비롯한 유럽 교포들이 지난해 5월 베를린에서 열린 ‘제35회 재유럽 오월민중제’ 전시를 둘러본 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최영숙씨 제공>

경북 출신...광주는 정신적 고향  
“왜 전라도 돕느냐” 협박 받아  
TV통해 광주학살 목격 분노  
수백명 교민들과 오월민중제  
광주학살 국제사회 알리고  
학살자 처벌 진상규명 촉구  
교민 2~3세들 독일에 모여  
임 행진곡 부를 때면 가슴 뭉클

짓을 보내고 있다. 지난 1986년부터 독일을 중심으로 개최해온 ‘재유럽 오월민중제’ 준비위원을 맡으면서 민중제를 꾸려오는 것도 그 중 하나. 80년 5월 이후 독일 곳곳에서는 매년 5월이되면 다양한 형식으로 광주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열었다. 파독 간호사, 광부, 유학생들이 중심이 됐다.

이후 1986년 재유럽 오월민중제라는 이름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등지에 사는 교민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1박2일에서 길게는 3박4일까지 매년 5월이면 수백명의 교민들이 유럽의 한 도시에 모여 임을 위한



파독 간호사 최영숙씨가 1980년 5월 광주를 지지하고 신군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열자고 교민들에게 보낸 초청장.

행진곡을 부르고 향을 피우며 5월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오월광주를 주제로 한 연극, 광주출전기 등 민중가요 부르는 물론 5·18 관련, 학술대회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5·18 정신을 기렸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사 평론가 진중권씨, 명진스님 등 국내에서도 다양한 인사들이 유럽에서 진행되는

오월민중제에 얼굴을 내밀었다. 최씨를 비롯한 유럽 교민들은 80년 5~6월 당시에는 광주학살을 교민들과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1990년대 중반, 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받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서기까지는 광주에서처럼 ‘학살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다 는 목소리가 유럽에서 개최되는 오월민중제의 핵심 의제가 됐다. 이후에도 오월정신 계승 운동과 통일운동까지 다양한 국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민중제를 열고 있다.

올해 민중제도 21일 주모제를 시작으로 ‘오월항쟁 역사왜곡 바로잡기’라는 차명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의 강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베를린에서 치러진다. 1980년 5월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행사의 중심엔 언제나 경북 성주 출신의 파독 간호사 최씨가 있어 가능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재유럽 오월민중제’를 준비하는 최씨는 “대한민국 민주화 발전에 한 획을 그은 광주가 우리들의 정신적 고향이라는 생각에 협박전화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오월민중제를 매년 열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교민 2~3세들이 독일의 한 곳에 모여 광주출전기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모습을 볼때가 가장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김향호기자 khh@kwangju.co.kr

## 광주 첨단3지구 개발 ‘제동’

국토부, “산단 쿼터량 초과” 속도 조절 요구

광주시, 남구 도시첨단산단 우선 개발로 선회 고려

산업단지과 주거,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광주 첨단3지구 개발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산업단지 개발 쿼터량을 넘어섰다면 속도조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7월 광주시 등에 따르면 북구 월출동과 전남 장성군 남면 일대 380만여㎡를 1.2단계로 나눠 2025년까지 산업단지와 주거,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보상비 466억원을 비롯해 공사비 374억원 등 1조217억원이 예상되는 매머드급 개발사업이다.

첨단3지구는 정부연구개발특구인 만큼 광기반 융복합, 차세대 전자, 친환경 자동차 부품, 스마트케어가전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분석에 일차적 3만 개, 지역경제 파급 효과 6조8000억원 등

첨단3지구는 정부연구개발특구인 만큼 광기반 융복합, 차세대 전자, 친환경 자동차 부품, 스마트케어가전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분석에 일차적 3만 개, 지역경제 파급 효과 6조8000억원 등

첨단3지구는 정부연구개발특구인 만큼 광기반 융복합, 차세대 전자, 친환경 자동차 부품, 스마트케어가전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분석에 일차적 3만 개, 지역경제 파급 효과 6조8000억원 등

첨단3지구는 정부연구개발특구인 만큼 광기반 융복합, 차세대 전자, 친환경 자동차 부품, 스마트케어가전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분석에 일차적 3만 개, 지역경제 파급 효과 6조8000억원 등

## 국제수영연맹,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준비상황 점검

FINA 사무총장 등 첫 방문  
11일까지 경기시설 등 둘러봐

국제수영연맹(FINA) 관계자들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넬 마르쿨레스크루 사무총장 등 FINA 관계자들은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광주에 머물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정 시설을 방문하는 등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광주가 대회 개최지로 확정된 후 FINA 관계자들의 첫 공식 방문이다.

개최지 선정 전 실사를 위해 광주를 찾았던 2013년 5월 이후 3년 만이다. 방문단은 경기·훈련 시설을 둘러보고 광주시와 준비 업무도 협의할 예정이다. 오는 10일에는 운영현 광주시장도 점검한다. 윤 시장은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해 FINA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할 예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 2016 내가슴愛약속

## 내가슴의 건강을 지키는 아리따운 실천

광주 상무시민공원 6월 12일(일)

종 목 10km / 5km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기념품 르가프 기능성 티셔츠, 양말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 9744  
참가신청 선착순 접수 <http://me2.do/xRtD1Luj>  
검색창에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을 입력하세요.

후원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협찬 헤라, 아리따움, 르가프